

## 김영배 테오필로스(영의 심리학 연구소)의 강의 및 피정과 퇴마식 참여 금지 요청

평신도 김영배 테오필로스(영의 심리학 연구소)는 교회의 가르침에 상반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퇴마식’을 하여 신자들을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며 교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가 쓴 「영성태교와 마음의 상처 치유」의 독서를 금지해 주시고, 그를 강사로 초빙하지 않도록 해 주시며, 그의 강의나 피정 그리고 소위 ‘퇴마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이 ‘영의 심리학’을 소개하면서, 그의 책 「영성태교와 마음의 상처 치유」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문제점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서울 논현동 소재 ‘영의 심리학 연구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배 테오필로스는 스스로 삼성산 성령기도회에서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강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수원교구를 비롯한 몇몇 교구 내 본당과 기관 및 수도원에서 강사로 초빙되어 특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의 강의가 교회의 가르침과 매우 다르고, 그가 행하는 ‘치유’ 및 ‘퇴마식’이라는 예식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미 2011년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무속의 영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2부에서는, 그가 와서 퇴마 수준으로 구마를 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크게 문제시되었다. 김영배 테오필로스의 강의와 피정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한 수원교구에서는 수도회 장상연합회에 공문(2019년 8월 20일자)을 보내 김영배의 강의 제의를 거절하여 줄 것을 모든 수도회에 요청하였고, 인천교구에서는 2020년 11월 16일자 공문을 통하여 인천교구 내 김영배의 강사 초빙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외 교포 신자를 대상으로도 활동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참조: 2018년 영의 심리학 제1회 미국 세미나 자료집 「가족 관계 안에서 정신치료(심리치료)와 영적인 치유」>.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튜브 ‘영의심리학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6ZhZL6pym4mKKikROP-vkg/videos>에 강의와 인터뷰 영상을 올렸으며, 코로나로 잠시 주춤한 이후 최근 한국에서 강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평화방송 “기도를 부탁해”(2022년 8월 5일 방송, ‘영의 심리학’에 빠진 딸의 사례)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최근에도 줄이나 다른 방식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에서는, 이 ‘영의 심리학’이 모든 것을 가족관계 문제로 풀어가다 보니 집안에 갈등을 부추기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며, 김영배의 ‘피정’에 얽매이게 하여 치유보다는 중독이 되

게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딸이 폐쇄적인 개인 신앙생활에만 몰두하여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인격적으로 불안해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며 욕설을 하여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김영배 테오필로스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며, 교회 교도권으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승인된 교회 단체의 지도 아래 정식으로 직을 부여받아 강의나 피정, 또는 소위 ‘퇴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책에서 밝히듯이, 그는 삼성산 성령기도회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였고 치유와 구마의 은사를 받았으며, ‘상담’과 ‘치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악한 영의 작용으로 보며, 자신의 상담과 치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악한 영의 작용에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대물림’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삶의 모든 문제는 가족 관계의 결과이며, 고통의 ‘대물림’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영향으로서, 부모가 그 순간 가진 악한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아기에게 전해지면서 악한 영이 함께 전달되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며 각종 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는 조현병, 우울증, 틱 장애 등 모든 것의 원인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겪은 것에서 찾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치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정신적 치료는 어느 정도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진정한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기에, 가족 관계로부터 악의 정체를 영적으로 파헤쳐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잉태된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태교’를 통하여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적 치유’로 심리학, 정신의학적 분석 및 치유 기법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 치유란 ‘퇴마식’을 의미하며, 그것은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 ‘의존과 집착의 영’, ‘음란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 문제점

김영배 테오필로스의 ‘영적 치유’는 하느님과의 만남, 화해,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가 ‘퇴마식’을 통하여 행한다고 주장하는 악령 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체도 치유의 은사를 받은 김영배라는 평신도 자신이다. 그는 모든 정신적,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악한 영에서 찾으려 하며, 어머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악한 것은 모두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비롯되기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유 기도를 통하여 악령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계 치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치유 기도는 말씀과 성사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 그는 원죄까지도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악한 영의 작용으로 본

다. 악의 대물림을 강조하며, 아기가 받게 된 고통과 상처가 부모가 저지른 죄와 악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이는 상처 치유를 위하여 자신에게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악한 영의 작용으로 보는 것은 신앙을 단순히 ‘퇴마식’을 통한 일종의 ‘영적 치유’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교회 내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인격적 성장(자유와 사랑의 완성)을 도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극적인 치유 체험이나 구마에 집착하도록 하여 ‘중독’에 빠지게 할 위험도 매우 크다. 더욱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영의 작용으로 몰아가는 나머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개인적 문제의 원인을 부모나 조상에 두게 하여 정작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 의식은 도외시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는 정반대로, 자녀의 정신 질환에 대하여 부모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심어 주어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할 위험도 다분하다.

김영배의 주장은 2000년대 초 한국 교회를 위협했던 ‘가계 치유’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가계 치유 대신 ‘영성태교와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내용은 비슷하다. 심지어 가계 치유의 폭을 심리적, 정신적 질병에까지 넓히고 있어, 온갖 정신적 심리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기까지 하다. 그의 주장에는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가 가계 치유와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점들이(「죽은 이를 위한 올바른 기도」 참조)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그릇된 원죄 해석, 세례성사의 은총의 부정, 구마 기도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이다. 김영배의 상담과 치유 기도는 교회의 교리와 예식에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가계 치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부모나 조상의 잘못 때문에 악한 영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생후 악행을 저지르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초점이 부모와 자녀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치유 기도(구마 기도)로 쫓아내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하여, 치유와 정화의 효과가 모태 안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원죄의 결과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영적 치유의 당위 내지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그는 완전히 새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향이나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주장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구마와 치유 행위를 하셨다는 증언을 다양하게 담고 있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악한 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는 하느님과의 내적 관계로서 신앙의 회복이라는 내적 기적이 외적으로 드러난 표징이지, 치유 자체가 목적이거나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마 예식은 교구 직권자에게서 특별히 명시적 허가를 받은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교회법 제1172조 참조). 가톨릭교회 안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구마 거행은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